

# 명칼럼니스트의 명답은

「아 보세요. 저  
오윤학인데요. 담당기자  
좀 부탁드립니다.」

전화벨이 울려 급히 수화기를  
들자 오교수의 꺾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제가  
담당기잔데요.」

「아 그렇습니까? 원고를  
어떻게 전해드릴까요?」

「교수님 편리하신대로  
하세요.」

「그러시면 가만있자... 아이구  
벌써 여덟시가 됐군요.  
연구실까지 오실려면 시간이 좀  
걸릴실거구 어차피 나도 퇴근을  
해야 하니까 시내 찻집에서 잠깐  
만나지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편리하죠.」

「그럼 우리 지난번 그  
다방에서 다시 만납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윤경이는 수화기를 놓고  
핸드백 속에서 루즈를 꺼내  
입술을 고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교수야?」

사진식자를 앞에 놓고 열심히  
오려 붙이기를하던 양기자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물었다.

「네.」

「그 양반도 정말 못말리겠군.  
아직까지 여일하니... 그것도  
재민가.」



양기자는 가위로 글자를  
오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윤경은 그런 양기자를  
쳐다보며 속으로 웃었다. 그도  
오교수한테 반년이상 시달렸기  
때문에 오교수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았다. 오교수는 그들이  
만드는 잡지에 3년 가까이

칼럼을 쓰고 있는데 원고마감  
날자를 어김은 당연한 일에  
속하고, 최종적으로 정한  
날자에도 오늘처럼 밤 9시  
10시가 돼야 원고를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연구실로  
찾아가서 2시간 3시간 죽치고  
앉아 있어야 원고를 받기 때문에  
그를담당한 기자는 모두 머리를

흔들고 두 손을 들고 만다.  
하지만 그가 써내는 칼럼은  
언제나 명칼럼이기 때문에  
아무도 필자를 바꾸자는 말은  
못하고 있었다.

사무실 밖으로 나온 은경은  
오교수와 약속한 다방으로  
가기위해 전철에 올랐다.

퇴근시간은 지났지만 전철안은  
여전히 붐볐고 사람들은 지친  
얼굴로 손잡이를 잡고 눈을 감고  
있었다.

은경은 30분이상 전철안에  
있어야 하기때문에 가급적  
안으로 들어가려고 사람들을  
헤집고 안쪽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그러던 그녀는  
조용히 성호를 굶고 있는 한  
사나이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 앞에는 태화  
아버님이 두툼한 돌보기를 쓰고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그의 얼굴은 무아경의  
얼락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자신을 감동시킨  
대목에 가서 자신도 모르게  
성호를 굶고 만 것 같았다.

그런 태화 아버님을 보는 순간  
은경이 머리속에는 연상작용처럼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다. 새벽  
4시만 되면 부처님 사진이  
걸려있는 벽앞에 정좌하고  
앉아서 천수경을 외우고  
관음주력을 하는 어머니 모습이.  
어머니 모습을 떠올리자

은경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출구를 찾을 수 없는 통로에 서  
있는 것 같아서였다. 은경이가  
태호를 처음 만난 것은 미숙이  
결혼 식당에서였다.

사진 촬영을 끝낸 신부가 뒤로  
돌아서서 들고 있던 부케를  
던졌을 때 공교롭게도 그 부케는  
은경이 머리위로 떨어졌다.  
그래서 몸을 옆으로 피하며  
부케를 받으려 할 때 누군가가  
짹짜게 달려와서 부케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아주었다.

부케를 손에 든 은경은 옆에  
선 사람을 돌아다 보았다. 그는  
식순을 사회보던 신랑친구였다.  
은경이가 당황한 얼굴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할 때  
명랑한 웃음소리와 함께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쌍의 원앙입니다.」

그날 신부친구 8명과 신랑  
친구 15명은 피로연이 끝난후  
따로 회식을 갖었다. 그때 은경과



남 지 심

태호는 친구들의 권유로 마치  
다음 차례에 탄생될 한쌍의  
부부처럼 나란히 앉았고 여흥이  
어우러졌을 때는 “봄이 오면”을  
함께 노래 불렀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고  
진달래 피는 곳에  
내마음도 피어  
아름다운 아가씨야  
꽃따러 오거던  
꽃만 말고 이마음도  
함께 따가 주오.

노래가 끝났을 때 그들은 다시  
우뢰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고  
그리고 좌중의 부러움을 사는  
공인된 한쌍의 남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교제가 시작된  
은경과 태호는 처음에는  
주말마다 만나다가 나중에는  
주중에 한번 더 만나게 되었고  
요즈음은 퇴근 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헤어지지 않으면 하루  
시간이 너무도 탄력있게 느껴져  
살아있는 것 같지않게  
생각되어지는 연인이 되었다.

은경은 월간 잡지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원고마감때인  
월말경은 대개 며칠씩 야근을  
하는게 상례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태화는 은경이가  
좋아하는 피자나 새우튀김을  
사들고 은경이 사무실 옆에 있는  
다방에서 기다리다가 은경이가

자신의 뒤에는 성호를 그으며 열리속에 잠겨있는 태호의 아버님과 지금쯤 염주알을 굴리며 관음주력을 하고 계실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두 사람은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다.

나오면 커피와 피자 혹은 튀김을 먹여서 들여 보내곤 했다.


은경은 태호의 그런 자상함이 한없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런 따뜻함보다 더욱 마음이 끌리는 것은 그에게 배어있는 관대함과 유모어 감각이었다. 태호는 바람이 잘 찬 고무풍선처럼 아무리 주먹으로 쳐도 끄떡없이 원형을 유지했다. 소심하고 한번 상처를 받으면 오므린 상처를 펴지 못하는 아버지의 웅졸함에 늘 불만을 품고 있던 은경은 어지간한 난관은 끄떡도 하지 않고 태연하게 버티는 태호가 더할 수 없이 미덥게 느껴졌다.

그뿐아니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해도 오늘은 즐겁고 유쾌하게 보내고 말겠다는 식의 낙천적인 성격은 고리만 풀면 비둘기 한마리가 날아가는 요술보자기처럼 새록 새록 맛있는 유모어를 만들어 내서 함께 있으면 말을 하는 시간보다 웃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속된 강정같이 텅없이 좋지만 하나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는 주위에서 유능한 젊은이로 충분한 대접을 받을 뿐 아니라 자신의 실속도 누구못지 않게 단단히 챙기는 사람이었다.

태호는 자그마한 무역회사 영업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 어떤 바이어와  
맞붙어도 대개는 승리를  
자신쪽으로 이끌어갔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청살바」였다.

이렇게 매력적인 태호는  
처음서부터 이지적이고 똑똑한  
은경이 마음을 사로잡는데  
충분했다. 그래서 연인으로 장래  
남편감으로 마음을 굳혀가고  
있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그것은 종교적인  
갈등이었다.

태호 부모님은  
카톨릭신자였다. 그중에서도  
아버님은 더욱 열성적이어서  
모든 사물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같은  
성당에 나가는 어머니하고도 늘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런  
아버님이시므로 자신이 낳은  
4남매도 성서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키워 카톨릭 신자로  
만들었다. 반면 은경이  
어머님은 보통 여자들이  
사워초과일이나 칠월백중이 돼야  
초와 향을 사두고 절을 찾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집에서 항상  
예불을 드리고 불경을 읽는 열성  
신도여서 그녀는 자신이 낳은  
3남매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적인 분위기에서  
키웠다. 그래서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방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 사진을 걸어놓고  
몸에 단주 하나씩을 지니고  
다녔다. 은경이 역시 오른손에  
팔지 겸용의 상아로 된 단주를  
지금도 차고 있다. 이 단주가  
두사람에게 심각한 갈등을  
불어넣어준 결정적인 계기가 될  
줄이야.

지난 이른 봄 퇴근후 함께  
만난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카테일 한잔씩을  
마셨다. 약간 술기가 오른  
붉은스름한 은경이 얼굴은  
불빛밑에서 더욱 매혹적으로  
보였다. 그래서 태호는  
진토닉잔을 잡고 있는 은경이  
손목을 살며시 잡았다.

태호는 은경이 손목에 들려져  
있는 단주를 만지작 걸리며  
물었다.

「엄마가」

은경은 단주를 팔지라고  
부르는 태호가 재미있어서  
생글거리며 대답했다.

「은경이 어머니 멋쟁이신데,」

「멋쟁이신 것만은 틀림없지만  
팔지를 선물하신 건 아니야,」

「그럼?」

「이건 팔지가 아니고 단주야,」

「단주?」

태호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듯 머리를 갸우뚱했다.

그런 태호를 보며 은경은  
염주와 단주에 대해 설명하고  
자기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자기도 불교신자라고 밝혔다.  
그러자 태호는 난감한 표정을  
지며 묵묵히 앉아있더니

「아, 좀 심각하구나」했다.

태호 예감대로 그들 관계는  
그날을 고비로 심각해져 갔다.

두 사람의 결혼을 놓고 찬반의  
논쟁이 벌어지던 끝에 태호  
아버지는

「결혼해라. 내가 책임지고 그  
아이를 개종시킬테니」라고  
결혼을 승낙했다.

하지만 그 승복속에는 개종이  
전재돼 있었다.

한편 은경이 어머니는

「니가 개종을 하면 모녀간의  
인연도 끊어지는 거다,」하며  
은근히 협박을 했다.

은경은 자신의 뒤에서 성호를  
그으며 열락속에 잠겨있는 태호  
아버님과 지금쯤 염주알을  
굴리며 관음주력을 하고 계실  
어머니 모습을 차례로 떠올리며  
암담한 절망감속으로 빠져  
들었다. 두 사람은 난공불락의  
철용성이어서였다.

「부처님과 하나님은 친할까?  
아니면 적일까?」

전철 손잡이를 잡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런 의문에 잠겨있던  
은경은 사람들을 헤집고  
출입구쪽으로 부지런히 나왔다.

명칼럼을 쓰는 명칼럼니스트인  
오교수한테 한번 물어봐야  
겠다고 생각하면서. ☉